

“술집 출입·팬 사인 안돼”... 선수들 코로나 철통 경계령



2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가 열렸다. 경기 중 덕아웃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KIA 선수들이 마스크를 쓰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KBO, 거리두기 2단계에 방역 강화
덕아웃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위반시 2차 적발부터 벌금 부과

고교야구 주말리그 일정 취소
대통령기 대학야구도 무기한 연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긴장감이 그라운드에도 감돌고 있다.

지난 25일 KBO리그 경기장에서는 낯선 풍경이 연출됐다. 덕아웃 내 프린트만 마스크를 착용했

만 이날 KIA 윌리엄스 감독 등 각 팀의 사령탑은 물론 선수들도 마스크를 쓴 채 그라운드를 예의주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되자 KBO리그도 이에 맞춰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강화한 것이다.

KBO는 지난 25일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경기 중 선수단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지난 21일 광주시가 행정 명령을 발동하는 등 서울과 일부 지자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선수들도 그라운드를 제외한 덕아웃, 라커룸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볼펜에서 연습 투구를 하는 투수와 포수는 예외로 한다.

덕아웃 곳곳에는 손세정제를 비치해 수시로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코로나 19 예방수칙에 맞춰 경기 중 칩 뱉기, 맨손 하이파이브 및 포옹, 물 뿌리기, 덕아웃 내 마스크 미착용 등 예방수칙 미준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런 위반 사례가 중계방송, 미디어, SNS 등에 노출될 경우 1차 경고를 받는다. 2차 위반 시에는 20만원, 3차 위반부터는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수들의 기강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중·고위험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적발되

면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다. 2차 위반 시에는 상벌위원회에서 제재를 심의하게 된다.

앞서 지난 21일 두산 베어스가 7월 원정 일정 중 주점을 찾은 1군 선수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이라는 자체 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

KBO는 당시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던 만큼 추가 징계 없이 두산 구단에 재발 방지를 위한 '구두 경고'에 그쳤다.

한편 KBO는 "퓨처스리그 일부 구장에서 팬 접촉 및 사인 행위 등이 확인됐다"며 버스 승차 시 팬 접촉 및 사인 행위, 선물 전달 금지 등의 예방수칙 준수도 강조했다.

아마 그라운드는 잠시 멈춘다.

여수 진남구장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화순고교와 광

주 동성고의 주말리그 경기 등 29·30일, 2020 고교야구 주말리그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대학야구소프트볼협회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위기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취소했다"며 "취소된 경기는 9월 중 재편성해 공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학야구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한국대학야구연맹은 지난 25일 "횡성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제54회 대통령기 전국구대회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번 대통령기는 당초 지난 15일 순천에서 개막할 예정이었지만, 순천시 공공시설 전면휴관 정책으로 인해 횡성으로 장소가 변경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보고싶다, 추신수

텍사스 6경기 연속 결장...감독 "추, 복사근 통증 스윙 때 문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는 추신수(38)가 6경기 연속 결장했다.

추신수는 26일 열린 텍사스와 오를랜드 애슬레틱스의 홈 4연전 두 번째 경기에서도 제외됐다. 이 경기에서 텍사스는 3-10으로 완패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올 시즌 트레이드 마감 시한(9월 1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추신수는 지속해서 트레이드설에 휩싸여 있기에 라인업 제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크리스 우드워드 텍사스 감독은 추신수가 다양한 부상을 안고 있지만, 복사가근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는 "스윙할 때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복사근에 무리가 있다. 전반적으로 추신수의 상태는 아주 좋다. 그가 준비된다면, 언제든 다시 기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드워드 감독은 추신수의 결장으로 선수가 부족한 상태로 경기를 치르고 있지만, 그를 부상자명단에 올리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에 추신수가 몇 경기 더 못 나온다고 하면, 부상자명단에 올리는 게 옳을 것이다. 하지만 추신수가 이번 시리즈 중 1~2경기만이라도 나오기를 바란다. 6~7경기에 결장하고 마지막 3경기에만 출전하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추신수를 부상자명단에 올리지는 않는 것은 트레이드와 연관 지어 생각할 수도 있다.



MLB닷컴은 트레이드 마감 전에 추신수가 건강하다는 것을 다른 구단에 보여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조코비치, 코로나 걸렸던 사람 맞아?

웨스턴 & 서던오픈 테니스 8강 진출 견재함 과시...올해 20전 전승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웨스턴 & 서던오픈(총상금 422만 2190달러) 단식 8강에 진출했다.

조코비치는 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회 나흘째 단식 본선 3회전에서 테니스 샌드그린(55위·미국)을 2-0(6-2 6-4)으로 물리쳤다.

올해 치른 경기에서 20전 전승을 기록한 조코비치는 안 레나르트 스트리프(34위·독일)와 준준결승에서 맞붙는다.

목 통증으로 인해 이번 대회 출전 예정이던 복식에는 불참한 조코비치는 "목 통증은 거의 없어졌다"며 "상태가 호전되면서 오늘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앤디 머리(129위·영국)는 밀로시 라오니치(30위·캐나다)에게 0-2(2-6 2-6)로 져 8강 진출에 실패했다.

함께 열리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웨스턴 & 서던오픈(총상금 195만 79달러)에서는 세리나 윌리엄스(9위·미국)가 마리아 사카리(21위·그리스)에게 1-2(7-5 6-7(5-7) 1-6) 역전패를 당했다.

전날 아란차 라스(72위·네덜란드)와 2회전에서 2시간 48분 접전 끝에 2-1(7-6(8-6) 3-6 7-6(7-0)) 승리를 따낸 윌리엄스는 이날 1세트를 선취하고 2세트 게임스코어 5-3까지 앞선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마지막 3세트 들어 윌리엄스는 자신의 첫 서브



게임에서 듀스를 8차례나 가는 접전 끝에 브레이크를 당한 뒤 0-5까지 끌려갔고, 세트 도중에는 왼쪽 다리가 불편한 모습까지 보이면서 무너졌다.

/연합뉴스

류현진, 마자와 대결

김광현 상대는 쿨

내일 동시 출격...동반승 기대

올 시즌 세 번째 동반 선발 출격하는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스카디널스)의 상대 팀 선발 투수가 정해졌다.

류현진은 28일 오전 7시 37분(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버펄로 샬러필드에서 열리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상대 팀 우완 투수 크리스 마자와 선발 맞대결을 펼친다.

김광현은 같은 날 오전 4시 15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더블헤더 1차전에 선발 등판하는데, 상대 팀은 우완 채드 쿨을 예고했다.

마자는 지난해 뉴욕 메츠에서 처음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은 신예급 선수다. 올 시즌엔 보스턴에서 2차례 등판해 1회 평균자책점 6.35를 기록했다.

그는 지난 17일 뉴욕 메츠와 원정 경기에서 올 시즌 처음 선발 등판했는데, 3이닝 동안 8피안타 4실점으로 부진하며 패전투수가 됐다.

마자는 국내 팬들에게도 익숙하다.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 시즌을 마친 뒤 여러 명의 외국인 투수를 영입 대상에 올려놨는데, 마자도 후보군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데이비드 뷰캐넌을 선택했고, 마자는 미국에 남아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았다.

김광현의 선발 맞대결 상대인 쿨은 2013년 피츠버그에 입단한 뒤 2016년 메이저리그에 출장했다. 이후 매 시즌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돼 안정적이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은 쿨은 올 시즌 5경기에서 1승 1패 평균자책점 2.84를 기록했다.

쿨은 최근 이적설에도 휘말렸다. 해당 팀은 류현진의 소속 팀, 토론토다.

최근 MLB닷컴은 "올 시즌 선발 투수들이 줄 줄이 부상으로 이탈한 토론토는 피츠버그의 쿨과 트레이드 윌리엄스 동반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류현진과 김광현은 2005년 8월 25일 박찬호(당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서재용(당시 뉴욕 메츠) 이후 15년 만에 한국 출신 메이저리거 동반 선발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전남 이유현·최효진 'K리그2 베스트 11'

16라운드 충남아산전 선제골 합작...5경기만에 팀 승리 이끌어

전남드래곤즈의 승리를 이끈 이유현과 최효진이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6일 K리그1 16라운드 베스트 11을 선정해 발표했다.

5경기 만에 승리를 거둔 전남에서는 선제골을 합작한 이유현과 최효진이 나란히 명단에 이름을 올

렸다.

원정길에 오른 전남은 전반 32분 최효진의 크로스를 받은 이유현이 오른발 슈팅으로 충남아산의 골대를 갈랐다. 이 골로 두 사람은 나란히 시즌 첫 도움과 시즌 첫 골을 장식했다.

전남은 후반 36분 나온 에르난데스의 추가골로 2

-0으로 경기를 끝내면서, 지난 11라운드 부천전(2-0) 이후 5경기 만에 승리를 쟁겼다. 이날 승리로 5승 8무 3패(승점 23점)가 전남은 6위에서 5위로 올라섰다. 4위 경남FC는 승점 2점 차다.

16라운드 MVP는 안산그리너스와의 홈경기에서 1골 2도움을 기록한 제주유나이티드의 정우재에게 돌아갔다.

제주는 정우재의 활약으로 3-1 승리를 거두며 1위 수원FC를 1점 차로 추격했다.

제주와 안산의 경기가 베스트 매치에 선정됐고, 제주는 베스트팀에도 이름을 올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유현

최효진